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



박 용 균 사무국장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오래전 한동안 유행하던 의약품 과용에
방 캠페인 표어에 이런 문구 「약 모르고 오
용 말고, 약 좋다고 남용 말자 !」가 있었다.

우리 주변에는 보양식품이나 약이라면 앞
뒤안 가리고 먹고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
은 것 같다. 야생조수의 불법포획이 수시
로 방송을 타고 있으며, 최근에 들은 유명
한 가정의학 전문가가 강의 중 약품 오남
용 사례로 “영이엄마 혹시 먹다 남은 감기
약 없어? 머리가 지근거리고 코가 멍멍한 것

이 아무래도 독감바이러스가 왔나봐” 라는 말을 하는걸 보면.....

필자가 소속되었던 기관에서 실시하는 해외파견 직무교육과정을 이
수할 때 혁신전과 강사는 과수용(overadoption)의 정의와 원인을 이렇
게 설명한 것으로 기억된다. 즉, “과수용이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아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될 기술이나 상품 또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행위”로 — 앞에서 말한 오용(misuse)와 남용(abuse)을 합친 말? —, 원
인별로 수용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첫째, 정보부재형(남들이 하니까)

둘째, 신분과시형(남들보다 뒤지기 싫어서)

어떤 형태이던 과수용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
용부담도 결국은 우리의 몫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특
히, 새로운 것이라면 무조건 들여놓고 보는 신분과시형 과수용은 빨리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생활과 관련된 과수용 사례
를 들여보자.

소형차의 90% 이상이 자동변속기

모 자동차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기간 중 차종별 국내에 판매된 차량과 수출용으로 선적된 차량의 수동변속기 비율을 보면 클릭이 12.6% 대 96.3%, 아반떼는 5.4% 대 91.9%, 그리고 세라토는 8.2% 대 96.0% 이었다. 나아가 국내에서 수동변속기를 단 중형차를 보기는 매우 힘들다. 유럽은 중형차의 70% 이상이 수동변속기를 달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자동변속기는 5단이 아니고 대부분 6단 이란다. 필자도 수동변속기를 장착한 중형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하고 3개월을 기다렸다. 흑백필름이 칼라보다 비싸듯 수동이 자동변속차량 보다 비싸질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2000cc 폭스바겐 골프를 모는 독일친구에게 물었다. “네 차는 왜 수동이나?”. 돌아온 대답은 “난 육신이 멀쩡하다. 그리고 기름값 하루 5마르크가 남의 집 애 이름이나?”

2층으로 개조된 비육돈 출하차량

돼지고기 수출이 한창이던 1990년대 후반기 수년간 PSE(물돼지)발생 예방책으로 국비를 들여 비육돈 출하전용차량을 지원한 적이 있었다. 국내 도로여건과 농장의 입지를 고려하여 초장축5톤 화물자동차(카고)를 구입하여 미끄럼방지매트와 칸막이를 설치하고 에어컨이 장착된 컨테이너 형태(냉장탑차)로 개조토록 하였으며 지원조건은 수송밀도 30(여름철)~35(겨울철)두, 운행속도 시속 60km, 최 근거리 도축장 출하, 한낮운행 지양 등이었다. 대체로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공급된 50대 중 2대는 2층으로 개조하여 한번에 70두 정도를 수송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농장주를 만나 연유를 물으니 작년에 서유럽의 육가공공장을 둘러봤는데 수송차량이 2층이 많더라. 필자도 몇 번 보았지만 서유럽의 동물수송차량은 대부분 기관부와 화물칸이 분리된 트레일러 형태로 상면이 낮고 리프트가 달려 있다. 그리고 운전자는 별도의 면허를 득한 사람으로 속도, 운행 및 휴식시간, 운송도중 급수 등의 제반 규정을 지키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특히 영국은 2000년대 초 구제역사태이후 개정된 동물수송법에는 일정 수 이상의 척추동물을 수송할 때는 수의사의 동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운송동물의 보호규정(제 8조)을 마련한 점이 다행스럽다.

쇠먹이 풀 수입 100만 톤 시대

2007년도 국내사육 소들이 먹을 조사료 451만 톤 중 국내산은 355만 톤(자





급률 78.7%)이고, 수입조사료는 지난해보다 20만 톤 정도 늘어난 96만 톤이 될 듯하다. 수년 전 들은 정부 관계관의 말에 의하면 외국산 풀을 좀 더 많이 먹일 수 있도록 수입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축산농가들의 요구가 있었다한다. 반면 국내산 부존사료자원인 강변의 어린 갈대를 수확하여 비닐포장(래핑)을 하거나 생으로 먹이는 축산농가들도 많이 있다. 문제는 가격이다. 중국이 이미 곡물수입국으로 변했고, 미국의 식량자급률이 10년 전 141%에서 119%(2002)로 낮아졌으며, 에탄올논쟁 이후 미국의 옥수수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6% 정도 늘어난 3620만 ha에 달한다하나 작년 말 톤 당 140\$에서 현재 100\$이상 오른 옥수수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대응방안의 핵심은 국내산 벼짚의 사료이용효율을 높이는 일이다. 2006년도 우리나라 소 1마리가 먹은 벼짚은 번식우 1,309kg, 비육우 969kg, 젖소 950kg(20두 미만 사육농가는 1,639kg)이며, 금년도 가축사료용 벼짚소요량은 210만 톤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이견 꼭 잡고 넘어가자. 사료용 벼짚에 미치는 가을철 기상이 이듬해 소들의 사료급여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예로 태풍 “매미”(9월1일 사천-울진 통과, 침수 4만 ha)가 지나갔지만 피해가 적은 편인 2003산 벼짚을 먹인 젖소 1마리의 2004년도 배합사료급여량은 3,240kg으로 2002년도 태풍 “루사”의 피해(8월31일 한반도 관통, 침관수 15만 ha)를 입은 벼짚을 먹인 2003년도 젖소 1마리 당 배합사료급여량 3,556kg에 비하여 320kg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3, 2004 두해의 젖소 1마리 당 벼짚급여량은 1,214kg, 1225kg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가을철 사료용 벼짚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거두어들인느냐가 초식가축 경영의 키포인트가 될 날이 목전에 와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자.

이젠 거품을 불어낼 때

「세계 최초, 아니면 미국(일본)에 이어 두(세)번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종종 발표되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업적을 보면 멀지않아 인간과 돼지가 장기를 공유함은 물론 암도 예방이 가능할 것 같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도 다량 증식할 수 있으며, 각종 식용 및 관상용 동식물의 종묘를 생산하여 외국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제발 거품속의 실체가 들어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 보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산 IC를 5km지점에 세워진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 신고배, ○○ 추청쌀” 선전탑이 모대학교 광고판으로 대체된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